Game p/12

게임 마운드 해도 야구 바람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제283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대륙 여심잡기 나선 지진희

청렴한 '민중의 지팡이' 파이팅!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경찰대학 연병장에서 열린 제30기 경찰대학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졸업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6명의 신임 경위를 배출한 이번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은 송하승 경위가, 국무총리상은 신건주 경위가 각각 수상했다. /연합뉴스

이통3사 영업정지 후폭풍 거세다

"보조금 없이 사겠나" ·제조·판매점만 죽을 맛

"영업정지 효과는 있었죠. 휴대전화 매장 문 닫게 하는 효과."

"정부는 보조금이 문제라는데 보조금 없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로 인한 후폭풍이 첫날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이통 3사의 순차적 사업정지(영업정지)가 시작된 13일 오전 강남역.

국내 최고의 하루 유동인구 35만 명, 순이용 승객 22만 명, 210개의 역내 상점으로 발 디딜 틈 없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10여 개의 휴대전화 판매점만 유난히 한산했다.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로 가득한 인근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과 달리 휴대전화 매장은 조용했다.

강남역에서 5년째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장 김모(27)씨는 "온라인 휴대전화 대리점이 성행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죽었다"면서 "영업정지 첫날이라 단정 짓기 어렵지만 계속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07년 통신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피처폰 시절에 월급 4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지금은 국내 최대 상권의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이 됐지만 사원 시절보다 수입이 줄었다.

김씨는 "당시 보조금 개념이 없어서 고객들이 단말기를 원가 다 주고 구입했다. 매출도 보너스도 많았다"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2010년에도 상황이 괜찮았는데 2012년 갤럭시S3 출시 때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이후 보조금 없이는 영업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점심 때가 다가오자 그는 직원 3명에게 "손님이 없으니 먼저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다. 점포 매출의 30%는 임대료와 인건비로 나간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역에 매장을 내려면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 1000만원이 보통이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은 인근 직장인과 학원 수강생들로 강남역이 바글바글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옆 가게에는 "KT 보조금 나오다요?"라고 묻는 학생 한 명만 다녀갔다. 마침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동시 영업정지를 맞았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해당 매장 직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객의 95%는 보조금을 먼저 묻는다. 단말기 모델과 요금제에는 그렇게 관심 있지 않다"면서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에 어려워졌으니 파리만 날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로 영업정지가 본격화되면 직원들에게 휴가를 권할 생각"이라며 "지난해만 해도 하루 10명은 실제 구매로 이어졌는데 최근에는 3~4명으로 떨어졌다. 아마 여름 되면 문 닫는 매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조금 전쟁 해결을 위해 요금제 강제 인하 법안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외쳤다. "일선 소비자가 아닌 국고로 들어가는 과징금 부과이지도 실효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김씨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웬만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90만원대인데 거품을 대폭 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보조금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보조금 없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살 것 같으냐"면서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오프라인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만 죽는 꼴"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강남역 일대 휴대전화 매장은 대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문을 연다. 손님이 없어도 김씨는 그때까지 가게를 지킬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통신 시장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어 일선 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다. 정작 이통 3사는 배부르지 않으나 시장 상황을 모르는 정부 관리자들이 밉다"면서 "스무 살 때부터 휴대전화 파는 일을 하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자부심도 느꼈는데 요즘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하며 가게를 서성거렸다.

/정윤희기자 un.yun@metroseoul.co.kr

'슈퍼 주총데이'…오늘 116개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14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1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슈퍼 주총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날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95개사와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1개사 등 116개사에 달한다.

삼성그룹은 17개 상장사 모두 오전 9시에 일제히 정기 주총을 시작하고, 현대차그룹도 현대위아스코와 기아차를 제외한 8개사가 오전 9~10시 사이 주총을 개최한다. LG그룹은 LG와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한 9개사의 정기 주총이 오전에 열린다.

SK,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계열사의 경우 대부분 오는 21일 주총을 개최한다. 두산그룹 계열사는 21일에 열리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주총을 연다. 다만 GS그룹의 경우 오는 14일과 21일로 계열사 주총을 실시한다.

또 오는 14일에는 전환한 증권사와 보험사 상당수도 정기 주총을 갖는다. 보험사 중에는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이 주총을 연다.

증권사의 경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대신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키움증권, 현대증권·HMC투자증권 등이 예정됐다.

/송태균기자 ksg@

반가운 프로 '최소한의 물건…'

기자 수첩
박진천
<연예스포츠부 기자>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요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이다. 그러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지닌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버림으로써 최소화하고 화학 제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던 와중에 보게 된 KBS2 '인간의 조건'은 참 반가웠다. 지난달 여성 특집으로 화학 제품 없이 살기 편을 내보낸 데 이어 이달부터는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기 편을 방송 중인데,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에 제대로 접근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부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고민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프로그램이 올해 초 방영 1년을 기점으로 다시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 반가웠다.

요즘 방송가는 봄 개편에 한창이다. 그중 KBS는 강호동·신동엽·이휘재·박명수 등 몸값 높은 유명 MC들을 총집합시켜 방송 3사 중 가장 화려한 라인업의 새 예능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작곡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토크쇼, 연인들을 관찰한다는 내용의 버라이어티도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전파를 타지 않은 만큼 어떤 프로그램인지 속단하긴 이르지만 화려한 겉치장에만 신경 쓴 것은 아닌지 우려가 살짝 든다. '인간의 조건'처럼 유명 MC가 없어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한다면 욕심일까.

청년취업 'Talk~ 터놓고 말해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한밭대 ... 열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크(Talk)~ 터놓고 말해봐요'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30여 명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과천서 발견된 기러기 AI판정

서울동물원 휴원, 청계산 등산로 통제

서울시가 지난 9일 경기도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서울동물원을 13일 정오부터 재휴원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견 지점이 서울동물원으로부터 불과 1.4km에 불과해 동물원의 희귀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청계산 등산을 위해 서울대공원을 통과하는 등산객의 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고병원성이 확정되면 과천시에서 반경 10km 이내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며 서울 시내에선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시는 우선 시 전역 사육 가금류 73가구 988마리에 대해 이동제한토록 하고 매일 1회 소독 및 예찰에서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예찰로 방역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 석촌호수 등 철새 및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 예찰 활동도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서울동물원과 주요 철새 및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분변 검사도 강화된다. 다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아비온은 정상 운영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멸종위기 희귀 조류 등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만 피하면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통합 신당에 바란다! 문희상·오은록 등 새정치·국민의 ... 이 13일 오전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 신당' 온·오프 라인 시민 ... 정당으로 승부하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비전위 첫 회의…본격 활동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추진단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비전위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백승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간사를 맡았다.

백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국민이익, 변화·실천을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며 "이번에 새 정치가 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자기 혁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며 "통합 신당은 여러분이 제시하는 새정치의 비전을 적극 수용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 & 뉴스

의원 평균 후원금 1억2000만원

●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새누리당 195억5497만원, 민주당 162억6966만원, 통합진보당 8억6924만원, 정의당 7억799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회의원 296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381억9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2816만원으로 집계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징역 8월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의 파면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욕 맨해튼서 폭발참사 아비규환

사상자 70여명 가스누출 추정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이스트할렘에서 주거용 빌딩 2채가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붕괴,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9명이 실종돼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다"면서 "사고 빌딩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폭발 15분 전인 9시15분께 신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현장에 보냈다. 하지만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조사 결과 테러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200여 명의 소방관과 10여 대의 소방차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펼쳤다. 현장 주변의 전철 운행을 중단하고 도로도 전면 폐쇄했다.

9·11 테러를 경험했던 뉴욕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 시민은 "폭발 현장에서 1마일(1.6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9·11 테러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무서웠다"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현재까지 한국인 희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국 뉴욕총영사관은 밝혔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스트할렘에는 스페인계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다. /조선미기자

주유하고 카드복제한 일당 입건

고객정보 불법수집 1억여원 결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대량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주유소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윤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사용한 혐의로 정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설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고객 신용카드 정보 5000여 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116장을 복제, 1억2200만여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3명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1건당 10만~20만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전해듣고 지난해 7월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 리더기와 복제 프로그램을 전달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한 달여간 대전의 한 주유소에 공범 유모(32)씨를 위장 취업시켜 주유를 마친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를 리더기를 이용해 복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yrhi@metroseoul.co.kr

한겨울로 돌아간 대관령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는 13일 봄을 시샘하는 많은 눈이 내린 데다 거센 눈보라까지 몰아쳐 한겨울을 방불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 대마 재배한 간큰 남자

최대 3천명 흡입량… 구속

서울 도심 한복판의 건물 옥상에서 대마를 재배한 '간 큰' 마약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구 소재 6층짜리 상가 건물 옥탑방을 온실로 꾸며 대마 18수를 재배하고 대마 31g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국제택배로 최상품 대마 씨앗 20개를 들여와 4개월간 옥탑방 온실에서 키웠다.

이씨가 재배한 대마는 g당 4000원에 불과한 국산과 달리 g당 10만원에 달하는 최상품 품종으로, 18주에서 최대 30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대마 270g(2700만원 상당)이 수확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마 31g을 사들이고 이 가운데 일부를 되판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마 7g을 사들여 피운 혐의로 마약 전과 2범 오모(25)씨도 구속했다. /윤다혜기자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대학 캠퍼스는 이미 봄이다.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열려 후배를 영입하기 위해 천체 관측 동아리 선배들이 망원경 작동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투신 중상

유서와 함께 폭로글 남겨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활약했던 천민기(22)씨가 자신이 승부 조작에 연루됐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13일 오전 5시56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창고 바닥에서 천씨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천씨는 투신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게임사이트 등에 유서와 함께 승부 조작 폭로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 천씨는 자신이 소속됐던 게임팀이 처음부터 승부 조작을 위해 기획되고 만들어졌으며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로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젊은 선수들만 영입했다고 적었다.

천씨는 또 나중에 승부 조작 사실을 알게 됐고 감독이 승부 조작을 권유해오다 이를 거절하자 시즌 중간에 숙소를 없애고 팀을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서울시 도로 분진 2000t 없앤다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도로 분진 2000t을 제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3일 "도로 분진은 미세먼지의 48%, 초미세먼지의 12%를 구성하는 요인"이라며 "8148㎞에 이르는 전체 도로를 385대의 청소차를 동원해 모두 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947㎞)는 매일, 2~4차로의 일반도로(861㎞)는 이틀에 한 번, 2차로 이하 도로(6340㎞)는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한다. 차량 통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소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한다.

시는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로 청소를 50% 확대하고 골목길, 학교 운동장, 화단에 물을 뿌리기로 했다. 황사주의보 때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물청소차 225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낡은 청소차 97대는 교체하고, 지난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진흡입청소차는 올해 31대로 확대된다. /박선영기자 mk.m@

서울 여의도 벚꽃 내달 15일 절정

지난해보다 5일정도 늦을 듯

올해 벚꽃은 2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다음달 15일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벚꽃 개화 시기는 남부지방은 내달 1~12일, 중부지방은 7~11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는 2~3일, 지난해에 비해서는 5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서귀포에서는 다음달 3일, 남부지방은 8~19일, 중부지방은 14~18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다음달 8일에 개화해 15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성모병원과 학생실습 논의

덕성여자대학교는 지난 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와 학생 실무실습 상호 협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덕성여대 홍승용 총장, 조예리 약학대학장, 신배연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나현오 약제부장·최선 약제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대생 실무실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덕성여대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선 박사를 덕성여대 약학대학 겸임교원으로 위촉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사랑의 연탄 나르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탤런트 이상윤이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지마을에서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제5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위례~신사 경전철 연장 추진

성남·광주시가 부담… 연내 용역 착수

성남시와 광주시가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경전철 신규 노선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15km)의 연장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노선을 성남지역까지 연장해 위례~을지대~신구대~성남2·3공단(하이테크밸리)을 잇는 7.5km 연장노선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원동 2·3공단 등 주변 일대와 경기 동부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성남 연장 구간 총 사업비는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에 적용한 1km당 740억원을 준용하면 5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성남시는 추산했다.

성남시는 인접한 광주시 지역까지 노선 연장도 협의 중이다.

검토되고 있는 광주 연장 구간은 성남 연장 노선 종점인 2·3공단에서 광주시청~광주역~오포읍을 잇는 15km 구간이다.

사업비(국비 6 대 지방비 4)는 관할지역 경유 구간별로 두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광주시,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연장 노선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연내에 기본설계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 건설은 행정 절차 등에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례~신사선 연장 노선은 이르면 2019~2020년 마무리될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1000만원 이상 체납 명단공개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6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준기자

"우면산 산사태 천재대비 못해 발생"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약한 지질 등 '천재' 요소에 대비 부족이라는 '인재'가 결합돼 발생했다는 결론이 났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목학회의 1차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담은 2차 조사를 종합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사태 발생 시간과 강우 빈도를 지점별로 정리했고, 당시 집중호우의 강도를 "120년에 한 번꼴"에서 "5년 이하~107년에 한 번꼴"로 수정했다.

그러나 천재적 요소가 컸다는 1차 조사의 시각을 뒤집지 못하고 폭우와 지질 상태, 대비 부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우면산 산사태가 났다는 결론을 냈다.

유족 측은 "서울시가 최종보고서를 발표 10분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며 "예정됐던 대토론회는 무산됐고 시장 면담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현준기자

병택항 기름 수천ℓ 유출 13일 오전 6시23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포승공단 인근 수로에 경유와 유사한 기름 수천ℓ가 유출돼 평택시와 평택오염관리공단 해경 관계자들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논술문항 92% 본고사에

주요 대학교 자연계 논술 문항 10개 중 9개 이상이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전형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제의 92.1%가 문제 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식이었다고 밝혔다.

전년도 87.0%보다 높아진 수치로, 13개 대학 중 이 비율이 90% 미만인 곳은 3개교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포함하는 문항의 비율은 전년도 37.4%보다 줄어든 20.9%로 집계됐다. /윤다혜기자

소방공무원 353명 특별 채용

소방 당국이 소방이나 응급 구조 관련 전공자 중 353명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

중앙소방학교는 19일까지 소방 전공학과와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 전역 예정자를 상대로 소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발 예정 인원은 남성 317명, 여성 36명 등 353명이다. 인천 70명, 서울 54명, 강원 44명, 충남 39명, 창원 36명, 경남 35명, 경북 30명, 경기 25명, 대구 16명, 대전 4명 등이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되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현정기자

함께할 '관악의 책' 선정

서울시 관악구가 올해 주민과 함께 읽을 '관악의 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분야에는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청소년 분야는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성인 분야는 '당신의 몬스터' 등 3권이다.

북카페 운영 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노원구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북카페 '마을과 미디어'를 공릉동 공공기숙사 1층에 조성,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북카페는 공릉동 일대에 건강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터민 운전면허 취득 도와

서울시 마포구는 지난 12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사회공헌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마포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연습면허 취득 시까지 교육 봉사활동 등을 시행한다.

metro HongKong

電擊毀容

造鼻植皮

metro France

"몸매관리가 승진 결정 짓는다"

몸매 관리가 직장 내 승진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웨이가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 78%는 몸매 관리가 커리어 개발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 사회학자는 "직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선 그 도부와 체위를 적당히 관리해야만 한다. 뚱뚱해 나왔다는 건 회사 안에서 게으른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metro Brazil

Sob escolta, garis rec
seis mil toneladas de li

리우데자네이루 청소파업 끝나

파업에 들어갔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청소부들이 지난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그들의 복귀 결정을 내린 데는 일부 파업 참가자들의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청소부 4000여 명 중 35%가 동참했다. 거리의 위생 상태가 심각해지자 시 측은 임시방편으로 예비 인력 15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에 무려 6000t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Russia

우주비행사 가가린 백만불짜리 미소에

할리우드 꽃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보다 멋진 미소를 가진 남자가 있다.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사진). 최근 메트로 모스크바가 실시한 '100만 달러짜리 미소' 설문 조사에서 그는 피트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탁테에서 가가린의 탄생 80주년(3월 9일)을 기념해 이뤄졌다. 리어나도 디카프리오, 브래들리 보트너, 톰 크루즈, 베네딕트 컴버배치, 조니 뎁 등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월드스타들이 가가린과 함께 '미소천사' 후보에 올랐다. 후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입 모양 사진만으로 호감도는 조사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3%(282표)가 가가린의 미소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관계자는 "가가린의 매력도는 조니 뎁과 피트보다 스무 배나 높았으며 디카프리오 보다 여섯 배 높았다"고 말했다.

심리학자 빅토르 포노마렌코 박사는 이에 대해 "가가린의 미소가 잘생기고 멋진 배우들의 미소보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따로 있다"며 "하관이 둥글고 부드러워 자상하고 인자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가린의 고른 치아와 활짝 웃는 입 모양 역시 시원하면서도 유쾌한 느낌을 줘 호감도를 상승시킨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제작자 테오무르 라피코프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가린은 부드러운 미소로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에게 답했다"며 "그의 미소는 남에게 신뢰를 주는 살아있는 미소였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훼손 얼굴 '페이스 오프' 수술

고압 전류 사고… 세계최초 자가안면 이식으로

고압전류 사고로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된 중국인 남성이 '페이스 오프' 수술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시오엔(29)은 집에 가는 길에 새로 설치된 변압기 배전판을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내부 구조를 보려고 문을 열었다가 얼굴이 고압전류에 빨려 들어갔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의 도움으로 목숨은 구했지만 얼굴이 훼손됐다. 눈 코 입 눈썹 등이 모두 기형으로 변했다. 오른쪽 눈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왼쪽 눈은 5~10㎝ 거리의 가까운 빛만 볼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부위는 코다. 코는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비강에 꽂은 고무호스를 통해 호흡을 할 수 있다. 입은 열지도 다물지도 못해 유동식만 먹는다.

아내 자자는 항상 그가 용기를 잃지 않게 격려하고 웃을 수 있도록 말을 건네며 남편 옆을 지키고 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는 샤오엔을 보고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보기 위해 샤오엔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면이식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여러 큰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산양군구(??)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시도하게 됐다. 여러 성형 전문가들은 진료 끝에 자가이식을 하기로 했다.

담당의사는 "코 입 눈 눈썹 피부를 재생하는 방법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먼저 가슴에서 피부 조직을 잘라낸 뒤 이 피부에 기관들을 만들어낸다. 오른쪽 눈은 의안을 이식하고 코는 다른 신체 부위에서 절단한 늑골을 이용해 코의 외형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피부를 얼굴에 이식한다. 얼굴에 피부를 이식할 때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야 혈액 순환이 이뤄지면서 얼굴이 제대로 재생될 수 있다.

담당의사는 "수술 후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진 못하겠지만 화장을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수술 효과를 설명했다.

샤오엔의 페이스 오프는 13일 첫 수술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용은 50만 위안(약 8700만원) 이상이다.

한편 이러한 안면 이식수술은 세계적으로 1?건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 기증자의 기관을 이식한 수술로 자가 안면 이식수술은 샤오엔의 수술이 세계 최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1934.38	(+1.84)
코스닥	547.51	(+8.21)
금리 (국고3년)	2.87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68.00	(-3.70)

뉴스 & 뉴스

아일랜드서 온 정통 오트밀
영화 오도노휴 주한 아일랜드 대사(왼쪽)와 프란시스 핏제랄드 아일랜드 장관이 13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아이리쉬 오트밀 브랜드 '플라하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스트 '마닐라 노선' 증편

● 에어아시아의 필리핀 계열사인 에어아시아 제스트가 한국 노선을 늘리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어아시아 제스트의 주니어 조 한국지사장은 13일 "5월 1일부터 인천~마닐라 노선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증편하겠다"면서 "부산~마닐라 노선은 상반기 중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일 2회 운항하는 인천~칼리보, 매일 1회 운항하는 인천~세부, 주 2회 운항하는 부산~칼리보 노선도 여름 성수기에 맞춰 항공편 추가 투입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01~3
부산광고문의	051)819-2100
독자센터	02)721-9817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꺼진 폰 화면 패턴 그려 잠금해제 '삼성 특허'

삼성전자가 꺼진 스마트폰 화면에 패턴 그림을 그려 교차점의 개수로 잠금 해제하는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9월 이동 단말에서의 잠금 해제 방법 및 이를 위한 이동 단말" 특허(출원번호 10-2012-0097132)를 출원했다.

특허청이 지난 12일 공개한 해당 특허는 꺼져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잠금을 해제한다는 점에서 LG전자의 노크온이나 노크코드 기능과 유사하지만 터치스크린상에 가상의 곡선을 그렸을 때 그 곡선의 교차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잠금을 해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문서에서 "잠금 해제를 위한 터치 입력 패턴에 있어 터치 면적, 터치 위치 및 터치 모양 등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보다 자유로운 터치 입력을 통해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신뢰 없는 금융, 존립 불가능"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간담회서 강조

"신뢰가 없어지는 금융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산(雨傘)론' 의 자세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을 뒷받침할 금융권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솔선해 금융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며 "만에 하나 신뢰를 위협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우리·신한·하나 등 6개 금융지주 회장과 IBK 기업은행장 및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신 기보 이사장 등 업권별 협회장과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수술 지향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달라"며 "정부에서도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의 선순환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반기 중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 하반기부터는 기술 금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스펙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청년·여성 고용 문제 개선에도 금융권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 성과가 다타날 수 있도록 과제의 이행 상황을 '금융 서비스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wa0202@metroseoul.co.kr

골퍼 유혹하는 '골프대전' 개막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SBS골프 대한민국 골프대전'에서 관람객이 한 업체의 퍼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정 사업도 '한류' 남미 코스타리카에 현대화 지원하기로

우정사업본부가 남미 코스타리카의 우정 현대화 지원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코스타리카 우정 당국 및 전자정부센터와 코스타리카 우정 현대화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우편업무 전산화 등 150억원 규모의 우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우정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9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우정 IT기업의 우정정보시스템 및 장비 수출액은 지난해 1663억원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우정 IT 시스템과 장비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지니고 있다"면서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에 국내 우정 IT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윤희기자 unnuye@

'제2롯데월드' 흔들리자 김치현 휘청

롯데건설 사장 취임 두달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 등 사업차질에 능력 도마 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프로젝트가 차질을 맞으면서 취임 두 달째를 맞은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의 경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그룹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인 인천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김 사장의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잇단 사고에도 공사를 강행하던 제2롯데월드타워가 개장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제2롯데월드 47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공장 공사를 재개하며 오는 5월 부분 개장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장 입주자를 모집하고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 개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여온 것.

하지만 서울시가 사용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5월 개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상반기 준공 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경우 부실 공사 및 안전관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5월 개장이 이뤄질 경우 비난이 집중될 것"이라며 "서울시도 사용 승인을 내는 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고, 롯데 측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2롯데월드와 함께 신격호 회장의 또 다른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실상 백지화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나 계양산 골프장이나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끌어온 사업들"이라며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그룹 내 롯데건설의 입지도 좁아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선옥기자 ssun0820@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배연기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들의 평생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캠페인으로 앞장서겠습니다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 |

-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8,000명
-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금액은 연간 약 1조 7천억 원으로 201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이며, 국민 전체 한 달치 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입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

-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 흡연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 5.7배, 폐암 발생률 2배 높음

※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가 타들어 가며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류연은 담배 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 그리고 니코틴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독한 연기로,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기 중 섞이는 담배연기 가운데 75~85%는 부류연이라고 합니다

‘예비 정규직’ 인턴 채용 늘듯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도 좋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1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인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42.8%가 '계획이 있다'라고 13일 밝혔다. '없다'는 37.7%, '미정'은 19.5%로 나타났다.

대기업(50%)이 중소기업(43.1%)이나 중견기업(38.1%)보다 인턴 채용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시기는 상반기가 87%(복수 응답)로 하반기(44.6%)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인턴들의 평균 급여는 120만원에 불과하지만 39.1%의 기업이 인턴 기간 종료 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혜택으로는 '우수자 정규직 전환'(89%, 복수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평균 72%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서류전형 면제'(13.4%), '인적성검사 면제'(4.9%), '일부 면접 면제'(3.7%), '필기시험 면제'(2.4%) 등의 혜택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었다.

인턴 채용 인원은 절반 이상인 52.2%가 '지난해보다 증가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비슷한 수준'은 39.1%, '감소 예정'은 8.7%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kmlee@

한양대 ‘NPL 투자전문가 과정’ 들으세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은 불확실한 미래에 안전한 자산 투자가 최고이며, 평균 연령 80세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제2의 연금을 준비하고 전세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NPL 투자전문가 정규 과정을 19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대학원 전용 멀티미디어 전용 강의실에서 개강한다.

5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정규 과정에서는 ▲전세 가격으로 내 집 장만 할 수 있는 방법 ▲유망한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수익률 높은 물건을 추천하며, 수강생은 수료 후 언제든지 일대일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업계 최고의 공신력 있는 실무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하며 3월 19일 첫 개강 수업은 청강이 가능하다. 문의 (02)2220-4222

김중수 마지막에도 ‘동결’

10개월 연속 ‘기준금리 2.5%’… 시장은 벌써 차기총재 성향 주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임기 마지막 의사봉을 내려놨다. 김 총재를 보내는 국내 금융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잔잔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인하한 뒤 10개월째 그대로 유지했다.

김 총재가 임기 마지막 금통위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번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장은 거의 없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30포인트 넘게 빠지며 1930선까지 밀렸다가 이날에 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에서 이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지만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13일 재임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가 내정된 후였기 때문에 김 총재 발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을 움직일 공은 차기 총재에게 넘어갔다는 반응이다.

김 연구원은 "시장은 다음주 예정된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9일)와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청문회에서 이주열 총재 후보자의 성향이나 향후 정책적 방향성의 가닥이 잡히면 시장은 이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온통 관심이 집중됐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 후보자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애초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가 아닐 것이란 분위기가 있으므로 중도 성향일지 매파 성향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동식 하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후보자가 기존 매파로 분류된 인사였긴 했지만 정작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다만 일각에서 차기 총재가 임기 초기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현정기자 hjcho@metroseoul.co.kr

매끈하게 빠진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페라리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를 선보이고 있다. '458 스페치알레'는 8기통 자연흡기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드리어 GDI 엔진(4497cc)을 장착, 9000rpm에서 605마력, 6000rpm에서 최대 토크 55kg·m를 기록한다. 또한 1마력당 2.13kg의 무게로 출력이 되 3초에 0~100km/h를 기록한 가속력, 1.33g의 높은 횡가속도를 자랑한다. /연합뉴스

와이셔츠 각 잡는 여왕 "세탁소여, 안녕"

찬순이 주부 경제학

매번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은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주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려니 돈이 아깝고 시간 면에서도 만만치 않다. 다림질도 요령이 필요하다. 남편의 출근길을 준비하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와이셔츠 다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와이셔츠를 다릴 때에는 세탁과 탈수를 마친 뒤 옷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로 다림질하고 남은 습기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다.

다림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는 것이 기본. 특히 셔츠의 안쪽 솔기 방향에 신경 써서 팔, 소매, 앞판, 뒤판, 어깨, 칼라 순으로 다리는 것이 좋다. ①팔 부분의 양쪽 봉제선이 뒤로 가게 한 다음 다려준다. ②소매는 양쪽을 잡아당겨 안쪽 끝부분에 다리미 끝을 밀어 넣고 누르듯이 다림질해준다. ③뒤판을 다림질할 때는 안쪽에서 다려야 번들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④어깨선을 왼손으로 잡고 잡아당겨 다리미판의 끝부분에 고정하면 쉽게 다릴 수 있다. ⑤칼라를 다릴 때는 뒷부분부터 다려야 겉모양이 비뚤어지지 않는다.

자수가 놓인 블라우스를 다릴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수는 입체감이 생명이므로 겉은 타월을 깐 뒤 그 위에 자수의 표면 쪽을 놓고 안쪽에서 다려야 눌림을 막을 수 있다. 바지를 다릴 때는 줄이 있는 부분에 옷핀을 꽂아 고정시키고 다리면 된다. 호주머니가 있는 부분은 다리기가 힘든데, 이럴 땐 두껍고 넓은 장지 같은 것을 바짓가랑이에 넣어 받치고 다리면 손쉽게 다릴 수 있다.

/이인규기자 lee@

"2020년 수출 5대 강국 진입"

삼성전자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보는 즐거움을 더한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2'를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화면크기 무려 133mm 갤럭시 그랜드2 출시

삼성전자는 멀티미디어 최적화 바일로 보는 즐거움을 극대화한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2'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13일 출시했다.

갤럭시 그랜드2는 지난해 출시된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의 후속작으로, 전작보다 6mm 더 커진 133.3mm 화면에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더욱 시원하고 선명한 이미지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16대9 화면비 '울티맨 와이드 뷰'를 채택해 영화나 게임 등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데 최적화했다.

갤럭시 그랜드2의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젤리빈 4.3을 채택했으며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5GB 램, 2600mAh 배터리를 채용했다.

'멀티 윈도' 기능으로 화면을 2분할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띄울 수 있어 멀티태스킹도 편리하며,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의 핵심 기능인 '그룹 플레이', 'S 트랜슬레이터', '스토리 앨범'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도 지원한다.

이 밖에 사진 촬영 시 소리나 음성을 함께 담아주는 '사운드 앤 샷' 등 다양한 카메라 기능도 갖추고 있다.

블랙,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51만7000원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MS 클라우드형 '원노트' 맥 사용자에 무료 제공

메모 앱의 간판 브랜드 '에버노트'가 강적을 만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 '원노트'가 공짜로 풀린다.

13일 미국 IT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애플 맥 컴퓨터 사용자에게 원노트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원노트는 'MS오피스 2003'부터 MS오피스 제품군에 끼워져 팔렸다. '윈도8'이나 '윈도8.1'을 쓰는 사람은 이미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MS는 공짜 원노트에 웹페이지를 스크랩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에버노트의 '웹 클리퍼'와 유사한 것이다.

북미의 경우 맥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원노트가 충분히 에버노트를 위협할 수 있다. 에버노트도 프리미엄 버전은 유료이기 때문에 완전 공짜인 원노트가 껄끄러운 수밖에 없다. /박성훈기자 zen@

정부, 중계·가공무역 6000억 규모로 키우기로

정부가 '중계·가공무역'을 통해 올해 수출액 6000억원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는 8개 부처와 12개 무역지원기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계획을 취합해 작성된 것으로 올해 무역·통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를 우리 기업의 해외 법인에 수출해 현지에서 제품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역량 있는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제품 발굴·수출에 필요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활용을 촉진하고 수입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재고 금융 신설, 단기수출보험(EFF) 지원 범위 확대 등 무역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자부는 최근 급증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증 획득지원 콜센터(1381)를 가동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전문 정보 사이트를 통해 기술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무역통상 시책 및 중앙과 지방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담당자 연락처 등과 함께 책자로 제작해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e북 형태로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기업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무역정보서비스에 무역 단계별로 기관별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송주영기자 bee@metroseoul.co.kr

부자끼리 모녀끼리 '커플 캠핑용품' 13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미 캠핑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무 LG 회장 '독창적 핵심 기술' 강조

기술성과보고회 열려 '케이블 배터리' 대상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독창적인 핵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본무 LG 회장은 지난 12일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서 "연구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 선도의 출발이라는 자부심으로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LG는 이날 연구개발상 수상자 8명 발탁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인재 46명을 임원급 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연구·전문위원은 임원 수준의 보상과 대우를 받으며 자기 고유 분야에서 실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 수행할 수 있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사장급'의 수석 연구·전문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하다.

LG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LG연구개발상' 수상팀 가운데 대상과 본상팀의 부장급 책임자 3명을 임원급 대우를 받는 연구위원으로, 차장급 책임자 5명을 부장급으로 각각 발탁했다.

이 중 ▲구부리고 감고 매듭 지을 수 있는 '케이블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LG화학 연구팀이 대상을 수상했고, 책임자(김계현 부장·42)는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300W)의 고출력 태양전지 모듈'을 개발한 LG전자팀,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곡면 플라스틱 OLED'를 개발한 LG디스플레이팀, ▲'안티에이징 성분의 피부 흡수 촉진기술'로 오휘 등 화장품의 피부 노화 완화 기능을 향상시킨 LG생활건강팀 등의 개발 책임자들도 부장급에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김태균기자 ktg@

구본무(왼쪽) LG 회장이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으로부터 LG 연구개발상 대상을 수상한 '케이블 배터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 제공

효성, 전남 가사도에 국내 최대 ESS 공급

효성이 13일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가사도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연계하는 1.25MW/3MWh ESS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내 도서지역에 설치된 ESS 중 용량이 가장 크다. 효성은 오는 5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가사도 160여 가구 주민 380여 명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저장장치다. 전력변환장치(PCS)와 리튬이온전지, ESS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ESS는 크게 ▲신재생 연계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신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전력 공급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사도의 경우 육지의 전력을 직접 끌어와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체적으로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발전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효성은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도 내 풍력발전 연계용 ESS를 설치했고, 삼성SDI 기흥사업장에도 1MW급 ESS를 구축해 전력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구리 농수산물공사에 250kW/500kWh ESS를 공급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및 활용을 돕는 등 국내 ESS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다. 흥공전력점과도 400kW급 계통 연계형 ESS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김태균기자

분양 봄바람 잡자! 마감 임박 '삼송 2차 아이파크' 인기몰이

서울 은평뉴타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인근 고양 삼송지구 미분양 아파트에까지 온기가 옮겨 붙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면서 인근 삼송지구 미분양 단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 지구 내 랜드마크 격인 '삼송2차 아이파크'는 최근 하루에 10여 건씩 계약이 이뤄지며 완판을 앞두고 있고, 인근 '삼송1차 아이파크' 역시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에 마감이 임박한 상태다.

분양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수요자들은 교육 여건이 좋은 중대형 단지인 삼송1차 아이파크에, 역세권의 중소형 대단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삼송2차 아이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송1차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3.3㎡당 900만~1050만원대로 전용면적 100㎡와 116㎡의 계약금은 5%, 최소 입주금은 1억4000만원부터 시작한다.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중대형이면서도 할인 혜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입주도 즉시 가능해 인기가 높다.

삼송2차 아이파크는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라 최근 분양 문의와 계약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소형이지만 최대 4베이 평면을 선보였고, 축구장 약 3배 규모의 포레스트 스페이스로 대표되는 시설 경쟁력도 갖췄다.

세일지	삼송1차 아이파크	삼송2차 아이파크
세대수	618가구	1,066가구
주택형	전용 100㎡ · 116㎡	전용 74㎡ · 84㎡
입주시기	즉시 입주가능	2015년 9월예정
특징	초등학교 · 도서관 · 트윈공원 인접	삼송역 역세권 대단지
분양문의	1577-1551	1566-3022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고,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삼송역 개발도 계획돼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통일로, 원흥~강매 간 도로(8월 개통 예정) 등의 도로망을 통해 서울 도심권을 비롯해 여의도, 강남권 등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번지(삼송2차 아이파크 현장)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 스트리트형 상가 분양

대한민국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초역세권에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 스트리트형 상가가 분양된다. 길을 따라 들어서는 스트리트형 상가는 개방감이 높아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는 연면적 1만3000여㎡ 규모로, 점포 수만 110개에 달한다. 인근 상업시설 중 점포 수 기준으로 최대다.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사선형 도로를 통해 전 매장을 전면도로에 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됐으며, 상가의 4면이 모두 도로와 접한다. 특히 테헤란로에 입면이 노출되는 입지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에 적용되는 공간구조 분석 스페이스 신텍스(Space Syntax) 기법을 토대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테헤란로로 이동하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상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으며, 지하 2층은 강남역 1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최근 가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가장 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로 728실에 달하는 입주민 고정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 강남역 이용객 약 21만 명, 주말 35만~40만 명의 유동인구와 2만여 명에 달하는 상주인구도 갖고 있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마련돼 있으며, 2015년 3월 입점 예정이다. 문의:(02)563-3580

/박선옥기자 ncc@

바람소리보다 조용한 전기차

기아자가 출시한 전기차 쏘울 EV의 외관 및 내부(작은 사진) 모습

시승기- 기아차 쏘울 EV

휘발유 자동차가 등장한 지 12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입지는 확고하다.

이 흐름에 변화를 줄 차세대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는 게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다. 한때 수소연료전지차가 주도권을 잡는 듯했으나 최근에는 전기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기충전소 설치가 상대적으로 쉽고 수소연료보다 전기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아자가 지난 11일 공개한 쏘울 EV는 다가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서 나온 모델이다.

쏘울 EV는 최고 출력 81.4kW(111마력)의 전기모터와 27kWh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이는 국산 전기차 중 스파크 EV(105kW·143마력) 다음으로 강력한 성능이다. 르노삼성 SM3 Z.E.는 70kW(95마력)이고 기아 레이EV는 50kW(68마력)다.

차체는 쏘울 가솔린·디젤 모델과 공유하기 때문에 길이나 너비, 높이가 모두 같다. 대신 배터리 무게 때문에 공차 중량이 늘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증가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모터의 특성상 초반 가속은 매우 빠르고 소음이 거의 없다. 워낙 조용하다 보니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다. 변속 충격이 없는 것도 전기차만의 장점이다.

차체의 강성과 핸들링을 알아보는 슬라럼 테스트를 해보면 쏘울 일반 모델보다 안정감이 확실히 좋아졌다. 배터리 팩이 차체 아래에 깔리면서 무게중심은 낮췄고, 쏘울 EV 전용 서스펜션으로 셋업되면서 주행 안전성이 향상됐다.

1회 충전 거리는 148km로 일반적인 출퇴근용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 이기상 전무는 "쏘울 EV는 국내에서 211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법규상 인증치가 70% 수준이어서 148km로 표시됐다"고 설명한다.

가솔린·디젤 차체와 동일 – 연비는 '리프'급
환경부 등 보조금 최대 2400만원 지원 솔깃

인증받은 에너지 소비 효율 5.0km/kWh. 기아자에 따르면 쏘울 EV의 연비는 닛산 리프와 비슷하고 BMW i3보다는 떨어진다. 영하 7도의 저온 상태에서 주행 거리는 122km로 일반적인 주행 때보다 줄어든다. 엔진은 열이 발생하므로 히터를 틀 때 연료가 추가 소모될 일이 거의 없지만, 전기차는 전기를 사용해 히터를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아자는 공조 시스템으로 인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기차용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해 장착했다. 기존의 전기차와 달리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모터, 인버터 등의 전장부품에서 발생하는 폐열까지 모두 활용토록 한 것.

쏘울 EV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레이 EV보다 발전됐다. 문제는 충전소 숫자와 충전 시간, 차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1900개의 급속·완속 충전기가 있으나 상당수는 제주도에 집중돼 있다. 기아자는 올 해 말까지 영업점과 AS 센터에 급속 29개, 완속 32개 총 61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전기차 1대당 완속 충전기 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쏘울 EV의 장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차데모 급속 충전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쟁사의 충전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속 충전용 케이블도 갖추고 있다. 가격은 4200만원 전후로 정해질 예정인데, 환경부 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합칠 경우 최대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전남 영광 900만원, 부산 800만원, 서울 750만원, 경기 500만원 등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 만약 서울에서 구입한다면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자는 오는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개인에게 처음 판매할 예정이며 점차 공공기관과 개인 고객에게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ferrari@metroseoul.co.kr

'꿈의 화질' UHD 방송 내달 상용화

케이블협회 선포식 진행… 하반기 셋톱박스 도입으로 서비스 확대

케이블 TV 업계가 다음달부터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에 본격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는 다음달 10일과 1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케이블TV 쇼'를 열고 UHD 방송 상용 서비스 선포식을 진행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디지털케이블TV 쇼'는 케이블 TV 산기술·장비 소개와 미래 비전 공유, 관련 산업 최고경영자(CEO)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론의 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스마트 케이블, 더 큰 즐거움(Smart Cable Experience More)'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스마트 플랫폼, 케이블이 TV의 가치를 더한다. 시청자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케이블이 꿈꾸는 스마트 세상'이라는 내용을 담아 진행된다.

특히 '케이블TV의 UHD 상용 서비스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의 운을 띄우면서 케이블 업계가 UHD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케이블 업계는 2015년부터 UHD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사와의 협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셋톱박스 내장형 TV를 개발, 다음달 오픈하는 케이블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와 연계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케이블 UHD 셋톱박스를 도입, 서비스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연내 셋톱박스 개발이 완료되면 우선 10만 대 물량을 공동 구매해 UHD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UHD 셋톱박스 보급을 필요로 하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공동 구매에 추가로 동참시켜 케이블 UHD 방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UHD 상용 서비스 선포에 맞춰 케이블협회는 이번 디지털케이블TV 쇼 전시 행사에 'UHD 테마관'과 '케이블TV 미래관'을 운영, UHD 방송의 미래를 소개한다. UHD 테마관에서는 UHD 관련 영상, 음향, 편집기 등이 전시되며 케이블TV 미래관에서는 UHD 전용 채널 및 스마트 방송 핵심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전시관에서 UHD TV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UHD TV 관련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UHD TV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UHD TV에서 한 단계 진화한 커브드 UHD TV, 올레드(OLED) UHD TV 등의 등장은 UHD 방송시장에도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양휘부 케이블협회장 역시 "지난해 7월 케이블 업계가 세계 최초로 꿈의 화질을 구현하는 UHD 시범방송을 시작하며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올해를 케이블 업계의 UHD 방송 원년으로 지정하고 UHD 콘텐츠 투자 및 전용 채널 운영, UHD 케이블 방송 상용화 등 방송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케이블 업계는 UHD 활성화를 위해 기술, 설비, 콘텐츠 분야에 2017년까지 약 6500억이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케이블 TV 업계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초고화질 UHD 방송 상용화에 나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다음달 1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케이블TV 쇼'에서 UHD 방송 상용 서비스 선포식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보조금 주도 탓… 이통 3사에 304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불거진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선정해 각각 14일,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또한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 3사 신규 및 기변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조사 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57.3%였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사업자 시장 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 정책 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 90점, KT가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주도 사업자로 선정,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시기는 중소 제조사나 일반 유통점(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차후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조치는 방통위의 영업정지와 달리 신규 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 변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한 영업정지 시기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이나 중소 단말 제조업체 등을 고려해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부 영업정지에 이어서 할지, 2개 회사를 동시에 할지 여부 등은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지난 12월 제재와 달리 이번에 벌점 1위와 2위 사업자가 3점 차에 불과한데 동시에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벌점 3등 사업자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기 때문"이라며 "두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과열 주도가 명백한 만큼 주도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정 등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한 커플이 광대역 무제한 음성통화를 선보이고 있다. KT는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이용 고객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커플 간 음성 무제한 통화 혜택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KT 제공

KT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1회선 음성 무제한

KT가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커플 고객 서비스를 확대한다.

KT는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이용 고객의 편의 확대를 위해 커플 간 음성 무제한 통화 혜택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에 추가로 지정 번호 1회선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커플 음성 무제한 통화 혜택은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에 가입된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정 번호는 KT 모바일 1회선을 대상으로 상대방 요금제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번호는 월 1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KT는 이 서비스가 커플 간 통화량이 많은 20~30대들에게 호평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신청 및 커플 음성 무제한 혜택을 원하는 고객들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나 올레플라자, 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 본부장은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 커플 혜택 확대로 KT 고객은 월 15GB 데이터뿐 아니라 커플 간 음성통화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성향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문희기자 unique@

'게임 마운드' 위 야구 바람

프로야구 시즌 앞두고 '매니저' '마구마구' 재미 업그레이드 경쟁

야구 마니아들을 잡아라.

지난 주말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시작되면서 야구게임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갈수록 높아지는 야구 마니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현장 야구 못지않은 나테일한 움직임은 물론 게이머들의 상상과 추억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빠르게 무장하고 있다.

넥슨은 29일 프로야구 개막에 앞서 온라인야구게임 '프로야구2K'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가 원하는 선수를 선택해 성장시키는 '마이플레이어' 모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롯데 자이언츠의 강민호를 선발투수로 성장시키거나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를 발 빠른 유격수로 육성하는 재미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KIA 타이거즈의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와 리모델링이 한창인 한화 이글스의 한밭 야구장 등 디테일함을 살린 신규 콘텐츠도 추가할 방침이다.

컴투스의 '프로야구 매니저'도 최근 선수 로스터를 업데이트했다. 이 덕분에 두산 베어스 코르게 칸투, SK 와이번스 루크 스캇 등 올시즌 전 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외국인 용병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0일까지 선수별 능력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시즌 버프 효과도 적용, 새로운 선수들로 더 강력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마블의 모바일야구게임 '마구마구2014'는 '빙그레 이글스', '현대 유니콘스' 등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전설들을 최근 추가해 올드 야구 마니아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과거의 빙그레 이글스와 현재의 한화 이글스가 붙이는 재미난 경기도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엔트리브소프트의 간판 야구게임 '프로야구매니저'의 개편도 주목거리다.

오는 22일 '프로야구매니저 비전 발표회'를 통해 개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2010년 서비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발표회이기 때문에 게임 마니아는 물론 야구 관계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하스스톤' 국내 무료 서비스 시작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초의 무료 게임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이 13일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리자드를 대표하는 워크래프트 시리즈에 기반한 디지털 전략 카드 게임인 '하스스톤'은 지난 1월까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고 유저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했다.

하스스톤을 플레이하려면 공식 홈페이지(http://www.PlayHearthstone.com)를 방문해 '무료로 플레이하기' 아이콘을 클릭, 게임을 내려받으면 된다.

하스스톤의 공식 출시와 함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됐다.

하스스톤 플레이 모드에서 3승을 거두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탈것 '귀환마'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하스스톤 하지 않겠는가?'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

또 직업에 상관없이 등급전에서 500승을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황금 영웅'이 추가됐고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하스스톤 카드 뒷면', 게임 중간 접속이 끊어져도 60초 내에 재접속하면 게임을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재접속 기능'도 추가됐다. /박성훈기자

'와일드 스타' 북미·유럽 노크

엔씨소프트, 6월 출시키로

엔씨소프트가 신규 대작 온라인 게임 '와일드스타'를 6월 3일 북미·유럽에 출시한다.

와일드스타는 엔씨소프트의 북미 개발 스튜디오 '카바인'에서 개발한 대형 MMORPG다. 공상 과학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비주얼 ▲독창적인 전투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스토리 ▲이용자가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덩전이 특징이다.

종족, 직업 선택에서 게임 진행까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방대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디지털 다운로드한 후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표준판은 59.99달러(약 6만4000원), 추가 혜택이 포함된 디럭스판은 74.99달러, 월 이용 요금은 14.99달러다.

정식 서비스는 6월 3일 시작한다. 3월 19일부터 와일드스타 공식 홈페이지(www.wildstar-online.com/en/preorder) 또는 아마존(Amazon), 게임스탑(GameStop)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주문을 받는다.

사전 주문 고객은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받고 출시 3일 전부터 게임을 미리 즐길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길드워2 중국 비공개서비스(CBT)를 시작한 데 이어 블소 일본 출시(5월 20일)를 확정하는 등 대형 MMORPG 3종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오케스트라 협연·OST 발매… '장난 아닌' 게임 음악

유저 귀 홀리는 넥슨 · '영웅의 군단' 독일 교향악단 녹음 등 화제

게임에 등장하는 음악이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진화했다.

대규모 해외 교향악단 협연 녹음곡을 모바일게임에 담는가 하면 게임 OST 곡만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시각적인 화려함에 듣는 즐거움까지 더해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업계 1위 넥슨이다. 넥슨의 신작 모바일 MMORPG '영웅의 군단'은 완성도 높은 OST 녹음을 위해 독일 주립 교향악단(Staatskapelle Halle)을 섭외해 독일까지 날아가 70명의 협연을 진행하고 그 소리를 담아왔다.

개발 기간이 4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스케일의 게임에 걸맞은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개발진의 고집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OST '롬(ROME)'을 비롯해 아름다운 선율의 '별의 기도', '와레테' 등 애잔 테마곡들은 네이버 뮤직에 오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넥슨의 장수 온라인 RPG '테일즈위버'에서는 지난해 10주년 기념 OST 컬렉션 앨범 발매로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최근에는 유저를 초청해 OST를 연주한 '온리유 콘서트'를 열었다.

지난달 개최된 콘서트에는 OST 참여 가수 이유림, 두번째달, 하우스룰즈는 물론 작곡가 박지훈이 참석해 테일즈위버의 최근 챕터 '므두셀라' OST의 편곡 버전 및 신규 캐릭터 '벤야'의 테마곡을 다양한 퍼포먼스로 연주했다.

'테일즈위버'에서는 서비스 11년 동안 200여 곡에 달하는 음원을 발표했다.

넥슨의 간판 온라인게임 '피파온라인 3'도 스포츠게임에 어울리는 경쾌한 OST로 축구게임 판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 게임의 메인 음악 '타임-뱅'은 2011년 발매된 미국 4인조 록밴드 올타임로의 정규 앨범 '더티 워크'에 수록된 곡으로 피파온라인 3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 뒤늦게 유명해졌다.

최근 스포TV 게임즈의 예능프로그램 '피파온라인 완전 정복-그라운드의 지배'에 출연하는 두 명의 아나운서들이 일명 '아잉아잉 송'으로 재탄생시키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박성훈기자

'영웅의 군단' 독일 오케스트라 실연 작업 /넥슨 제공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 "수술 필요 없어요"

고주파 시술 10분이면 말끔… 연예인·스포츠스타도 체험

30대 여자 회사원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우거운 느낌으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 진단을 받고 치료했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

최근 엄덩이 통증과 다리 광감이 심해지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자 인터넷상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 받았다는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으며 요추 MRI상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해 B씨는 답열 아픈 부위에 요추 신경치료 주사 치료 후 척추 노수 운동 치료 센터에서 요추 노수 감압 운동 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시행하니 지금은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작업 등이 일어 많아지면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은 현대인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됐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진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침 치료, 추나 요법, 교정 치료, 약을 치료, 신경 성형술 등만 하다 보면 결국 허리 및 목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이승주(왼쪽) 원장과 개그우먼 김신영.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세계 각국에서 주로 찾는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의 척추 치료 특징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첨단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이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별·나이별·증상별로 맞춤형으로 환자 개인당 척추 전문의사,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의 전담팀이 꾸려진다.

이처럼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계계하며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1대1 맞춤형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 치료인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10여 분 만에 시행해 치료를 끝낸다.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의 도수 감압 운동 치료 중에서 도수치료는 수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12명의 도수치료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치료법은 손을 이용해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고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바로 잡아 눌린 신경 압박을 감소시켜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다.

또한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킨다. 분야별 20명의 전문 운동 치료사로 구성된 운동 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킨다.

강남초이스병원은 서울대입구역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 목·허리·어깨 통증 치료, 체형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첨단 장비로 척추관절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세상 모든 '스마트한 의술' 서울 상륙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 38국 참여 코엑스서 열려

올해로 30회를 맞는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4)'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오는 16일까지 '행복을 열어가는 스마트한 세상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한국이앤엑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전시회에는 510개의 국내 제조업체와 미국·중국·독일 등 총 38개국 1095개 업체가 참가하며 이들은 첨단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 정보 시스템, 헬스케어 재활기기 등 3만여 점의 제품을 전시 소개한다.

특히 주최 측은 관람객 편의와 전시 효과 증진을 위해 ▲치료 및 의료정보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검사 및 진단기기관 ▲진단 및 병원설비관 등으로 전시층을 구분해 준비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기기 부품 특별관'도 운영된다.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서 JW중외메디칼이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된 연성 내시경을 시연하고 있다. /JW중외메디칼 제공

또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의료 산업 정책 세미나 ▲의료인을 위한 특별 강좌 ▲의료 산업 및 의학술 세미나 등의 콘퍼런스와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서울시 물리치료사회 학술대회' 등 총 98개 주제의 다양한 학술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원주시·경상남도 등 국내 지자체들이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으며 독일, 중국, 대만 등은 내외국가관을 통해 국가별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를 후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70개국 3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 7만30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이앤엑스는 올해 KIMES 장학생 제도를 신설해 국내 의공학부 후진 양성과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정예로기자

봄꽃보다 먼저 핀 '각질 꽃' 미워

환절기 피부 보습 유지법

설렘 다가온 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피부 건조함이다. 특히 건조한 피부는 재생 능력이 떨어져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하는 과도한 세안은 피부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 세안제나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얼굴 전체를 문질러야 하며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또 정확한 각질 관리법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각질층은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다만 심한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가 각질이 정상적으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1~2주에 한 번 정도 스크럽·필링제 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게다가 봄은 어느 계절보다 수분 크림이 필요한 시기다. 로션과 에센스의 비중을 줄이고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팩을 한 사람이라면 팩 하는 횟수를 주 2~3회로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전문적인 시술을 통해 단시간 내에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도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물광주사인데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피부 속에 채워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김진윤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은 "일상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봄철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용기자

절친된 사연이 맛있어!

'우정' 돋는 외식 메뉴 추천

새로운 친구와 빨리 친해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친구와 우정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알콩달콩한 메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치킨 브랜드 BHC의 인기 메뉴 콜팝치킨과 요레요레는 친구랑 먹기에 부담 없는 메뉴다. 특히 상품 콜팝치킨은 콜라와 치킨이 결합돼 간편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다. 출출한 하굣길 친구와 대화하며 먹기에 부담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높다.

또 요레요레는 치킨과 감자칩·샐러드의 조합이 독특한 제품이다. 다양한 취향에 깔끔함을 선호하는 여학생들이 한곳에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면서 먹기 제격이다.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는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퓨전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까르보나라 떡볶이와 같은 독특한 메뉴와 깔끔하고 향긋한 마리를 통해 고급스러운 분식을 맛볼 수 있다.

친구들과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뷔페 레스토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슐리는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갖춘 메뉴를 1만원대에 즐길 수 있다. 애슐리 클래식은 60여 가지의 메뉴와 평일 점심 가격이 9900원을 유지하고 있어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다. /정영일기자

수저만 놓으면 집밥 완성

1인 가구 위한 간편한식 육수양념·볶음 등 다양

새 학기를 시작한 대학교 자취생·독립 직장인 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취생은 인스턴트를 즐겨 먹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는 집에서 직접 밥을 해 먹는 이른바 '집밥족'이 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간편한 한식 요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대상FNF 종가집이 최근 출시한 '데이즈 한식요리 양념 3종'은 진한 사골 육수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사골 육수 양념'과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매운 탕·찌개 양념', 매콤하고 진한 감칠맛으로 각종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리는 '매운 볶음 양념'으로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도와주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국·찌개·볶음 등의 한식 요리에 필요한 모든 양념이 다 돼 있어 한 가지 양념으로 재료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즈 오징어채 볶음'은 수제방식으로 만들어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반찬 맛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청정원에서는 갖은 양념이 들어 있어 추가 양념 없이 그대로 끓여도 맛을 낼 수 있는 장류 제품인 '그대로 끓여도 시골맛 청국장찌개'와 '그대로 끓여도 깊은맛 우렁된장찌개'를 선보였다. 요리 솜씨와 상관없이 제품을 그대로 넣고 끓이면 청국장과 된장찌개를 완성할 수 있어 인기다.

오뚜기의 '옛날잡채 매콤한 맛'은 자취생도 간편하게 잡채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 조리 과정이 번거로운 잡채를 볶지 않고 라면처럼 5분이면 간편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다. 용기면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기만 하면 맛있게 매콤한 잡채를 즐길 수 있다.

샘표의 '국시장국'은 맛 내기가 까다로운 국수 국물을 손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국시장국과 물 비율을 1대8로 섞은 후에 소면만 삶아서 넣으면 간편하게 잔치국수를 만들 수 있다.

아워홈의 '손수 겉절이 양념'을 이용하면 무생채, 부추 버무림 등의 채소 무침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정영일기자 ryme@metroseoul.co.kr

작가와 관객 '증강현실'로 접속

제1회 캠퍼스 텐 아트축제 앱 '쥬파' 활용 첫 AR 전시

메트로신문이 캠퍼스 텐과 특별한 화이트데이를 선사합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은 소셜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대학생 매거진 '캠퍼스 텐'과 가나아트 갤러리,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캠퍼스 텐 아트 페스티벌 @ 한화 63 전시회'를 공식 후원합니다.

이 전시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오전 10시~오후 10시) 국내 최초로 63빌딩의 1층부터 60층 계단과 17층 오피스 전체를 활용해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쥬파(CHUPAR)를 이용한 최초의 증강현실(AR) 전시로 작품을 태깅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도슨트 없이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친구·연인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환절기 운동시 이온음료 챙기세요

동아오츠카는 봄을 맞아 야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포카리스웨트가 추천하는 봄철 건강 관리법 몇 가지를 제안했다.

동아오츠카는 물과 이온음료를 통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절기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봄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3km 단거리 코스부터 42.195km 풀코스까지 자신의 신체리듬에 맞춰 선택하며 마라톤을 준비하는 동안 꾸준한 심폐운동과 식단 조절을 진행해 체력 증진에 힘써야 한다.

한편 포카리스웨트는 오는 4월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2014 서울국제마라톤'의 공식 협찬사로 음료 후원과 포카리스웨트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박스터 '콩팥 건강 도시락' 나눔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 박스터가 '세계 콩팥의 날'(3월 13일)을 맞아 내 환자신자시 종로종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콩팥 건강에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 종로구 및 중구 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박스터 임직원들이 매달 진행하는 '박스터 사랑의 반찬 봉사'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을 배운 후 도시락을 직접 만들었다. /박스터 제공

달아난 입맛 잡으러 돌아온 그 맛…

외식업계 봄철 메뉴 개발 리턴·리뉴얼 마케터 봇물

새봄을 맞아 외식업계에서 새로운 메뉴를 속속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의 미음을 잡기 위해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식업계에서 각양각색의 '리턴·리뉴얼 마케팅'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있던 메뉴들이나 베스트셀러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 겨울철 떨어진 입맛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버거킹의 경우 4월 24일까지 '콰트로치즈와퍼'를 재출시해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콰트로치즈와퍼'의 출시 이후 재출시와 정식 메뉴 선정을 바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 버거는 한때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 이정재와 함께 화려한 신고식을 통해 다시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지난 1월 한국 진출 17주년을 맞아 반반 시즌 한정 메뉴를 리뉴얼해 출시했다. 이 메뉴는 갈릭 립아이와 와스나 스테이크와 앨리스 스프링 치킨, 립과 오지치즈 후라이즈 등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총 4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모션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 놀부족발 보다구이는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만든 '스페셜 세트메뉴'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세트는 소비자 아이디어로 탄생한 정식 메뉴다. 족발과 보쌈, 막국수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추가로 짬뽕탕까지 구성돼 있다. 이 구성은 커플·브랜드 패밀리 반반 세트 형태로 판매된다. /정영일기자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4. 03. 14 GRAND OPEN

2014.3.14 ~ 3.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물티슈 유해' 공포 닦아줘

안전한 제품 선택·사용법

최근 물티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물티슈 생산업체인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지난 2월 한 달간 1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물티슈 선택 시 우선시하는 것'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8%(1022명)가 '방부제 유무와 성분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물티슈를 바꾼 적 있나'라는 질문에도 77%인 1364명이 바꾼 적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안전성 이슈'(43%)를 꼽았다.

그렇다면 물티슈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물티슈에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물과 티슈다. 원단의 경우 원단을 구성하는 원사의 원산지와 원단 제조국을 살펴야 한다. 정제수를 살필 때는 형광증백제와 색소·포름알데히드·화학 향료 등이 함유됐는지, 몇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용 성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분 표기 시 화학물질 고유의 이름을 쓰게 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국가기관 및 환경 관련 대학, 물티슈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성분이 사용되는 곳을 확인하면 된다.

또 물티슈 보관에도 신경 써야 한다. 화장품처럼 물티슈에도 피부 보습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이나 고온에서 보관한다면 제품이 변질돼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huno0404@

아웃도어룩 일상으로 '하산'

신축성·땀 배출 기능 강화 스포츠 겸용 제품 출시 붐

대형 스포츠 행사가 많은 올해 유통업계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 특수를 노리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아웃도어에 스포츠 열기가 더해져 스포츠 의류 영역까지 자리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아웃도어 제품에서 올봄 선보인 '스포티즘 아웃도어룩'이 눈길을 끈다. 방수·방풍 등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신축성과 땀 배출 기능을 강화시켜 스포츠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네파의 아쿠아 윈드 재킷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입고 나와 이목을 끈 트레이닝 재킷이다. 방풍 기능과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통풍 효과가 좋은 펀칭 원단을 스트레치 원단과 함께 사용해 쾌적한 착용감을 높였다. 또 컬러감과 절개선은 적절히 조화를 이뤄 도심 러너들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컬럼비아는 땀을 빠르게 흡수·배출시켜주는 기능에 방점을 찍은 재킷을 선보였다.

컬럼비아의 타임투타임 재킷은 땀 흡수 및 배출 기능이 뛰어난 옴니위크 이뱁 소재를 적용해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인들에게 제격이다. 신축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해 거친 스포츠 활동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밝은 컬러감과 허리 절개선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일상에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스트레치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을 높여줄 재킷을 출시했다.

센터폴의 커리너 방풍 재킷은 초경량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격한 운동에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고 무엇보다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이다. 정돈된 느낌의 디자인으로 트레이닝룩을 연상시켜 스포츠 활동 시 부담 없는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노스페이스의 다이나믹3 재킷은 자체 개발한 특수 무공질 피막 구조인 '하이벤트 2.5 레이어'를 적용해 방수성과 내수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가볍고 소프트한 소재로 착용감이 우수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당신이 '이민호 SNS 무비' 주인공

제주항공 이색 이벤트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은 배우 이민호와 함께하는 공식 이벤트 페이지(myheroine.jejuair.net)를 오는 17일 열고 4월 20일까지 이용자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을 공개했다.

이용자 참여형 인터랙티브 영상, 즉 '이민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무비'는 이벤트 참여자가 이민호와 함께 영상 속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영상은 참여자가 이민호와 함께 제주항공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필리핀 세부로 출국해 저수탐공 사유 여행객 전용 라운지에서 여행 정보를 얻어 동안의 여행을 즐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민호 SNS 무비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람 가운데 추첨을 통해 ▲국제선 2인 왕복항공권(5명) ▲제주항공 여권 케이스 및 캐리어 벨트 세트(10명) ▲커피 기프티콘(50명) 등을 증정한다.

/정혜인기자

"초대형 청바지 구경오세요" 초대형 청바지의 주머니 속에 미녀들이 등장했다. 캐주얼 브랜드 갭은 삼성동 코엑스몰점 오픈을 기념해 13일 아셈프라자 광장에 가로 3m 세로 1.9m의 초대형 청바지를 제작해 공개했다. 갭의 대표적인 상품인 1969 데님을 크게 제작한 것으로 주머니 속에 미녀들이 담겨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갭은 코엑스몰점 오픈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헌 데님을 가져와 사진을 촬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새 데님 상품을 교환권 또는 50% 할인권을 증정한다. /갭 제공

밀레·엠리밋 오늘부터 할인

밀레와 엠리밋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오는 14일부터 7일간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노원점에서 밀레 그룹 대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단 롯데백화점 본점은 14일부터 18일까지 단 5일간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 브랜드의 신상품 할인전, 등산화·배낭 보상 판매 외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대별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상속자처럼 '브런치 카페'서 데이트 할래

단현 '디 브런치 카페' 등 화이트데이 연인에 제격

오늘은 연인들끼리 사랑을 전하는 화이트데이다. 둘만의 사랑을 조용히 속삭일 수 있는 장소로 브런치 카페가 새로운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카사망고'는 차별화된 지중해식 브런치 메뉴와 독특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카페로 남유럽 전통 에스프레소와 다양하고 신선한 생과일 음료, 건강식 등을 판매한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담백한 리코타 치즈와 신선한 채소가 함께 어우러진 메뉴로 다이어트식 브런치 메뉴로 각광받고 있다.

용산구 단현동에 위치한 '디 브런치 카페'(사진)는 프렌치 스나일의 디저트와 음료, 천연 발효 빵과 뉴욕 스타일 샐러드, 이탈리아 전통 파니니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다.

디 브런치 카페의 인기 메뉴로는 '그릭 치즈 샐러드'와 '오픈형 브런치'가 있으며 특급호텔 출신의 제프가 직접 만든 바나나 타르트, 얼그레이 쉬폰케이크 등도 연인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다. 또 이 카페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상속자들',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촬영장소로 사용돼 눈길을 받았다.

이범철 디 브런치 카페 팀장은 "디 브런치 카페는 신선한 재료와 천연 발효 빵을 사용해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연인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념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hihuno0404@

대중문화계에 '썸'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BS2 '개그콘서트'의 '두근두근', 케이윌 취선 마마무가 부른 '썸남썸녀',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 tvN '코미디 빅리그'의 '썸&쌈'

〈미묘한 남녀관계〉

방송도 가요도 요즘 '썸'타요

개콘 '두근두근'·코빅 '썸&쌈' 관련 콘텐츠 코믹하게 풀어내 '인기' 밀당 소재 웹툰·설레는 감정 담긴 노래도 '봇물'… '썸' 대중문화 코드로

언제부턴가 TV에 '썸'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썸'은 영어 '섬싱'에서 기인한 신조어로 남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상태, 즉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바로 직전 단계를 가리킨다. 과거 썸이란 단어는 "너 그 사람과 섬싱 있지?" "그 둘이 섬싱 있네" 등으로 쓰였으나 스마트폰 세대의 엄지 타이핑을 거치며 '썸남' '썸녀' '썸탄다' 등 다양한 파생어를 만들어냈다.

◆ 두근두근 TV가 설렌다

tvN '코미디 빅리그'의 인기 코너 '썸&쌈'은 실제 썸을 타는 과정과 썸이 아닌 싸움에 가까운 경우를 극단적으로 비교해 웃음을 자아낸다.

'썸&쌈'은 회사를 배경으로 장도연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선임사원은 가장한 실장 유상무가 등장해 구해주며 핑크빛 무드를 만든다. 반면 박나래는 이진호에게 들이대지만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말과 함께 면박당하기만 한다.

KBS2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인 '두근두근'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두 남녀가 서로를 친구 이상으로 바라보게 되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냈다. 이문재는 장효인을 좋아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장효인 역시 문재를 좋아하지만 친구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하며 툴툴거리기만 한다.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은 친구라기보다 연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썸타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

가상의 썸이 아닌 실제 썸도 TV에 등장했다. JTBC '마녀사냥'의 MC 신동엽·성시경·허지웅·샘 해밍턴은 '그린라이트를 켜줘' 코너를 통해 썸다는 시청자의 사연을 듣고 연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신 판단해준다. 그린라이트는 '이제 다음 단계로 건너가도 된다'를 의미하는 영어식 표현으로 MC들은 각자 앞에 놓여 있는 그린라이트 버튼을 눌러 썸과 연인을 판가름한다.

◆ 노래·웹툰도 온통 썸타는 이야기

연일 음악 방송 1위를 달리고 있는 소유와 정기고의 듀엣곡 '썸'은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라는 가사로 젊은 남녀의 설레는 감정을 잘 담아내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윌과 마마무 휘성은 '썸남썸녀'라는 노래를 발표해 인기에 동참했다. 노래 가사 중 '사랑의 정의를 왜 이 나이에 정해, 고백 진심은 나중에 다 나누면 돼'라는 부분은 구속된 관계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

올레마켓에서 인기리에 연재 중인 웹툰 작가 모히또의 '썸툰'은 최근 100회를 맞이했다. '썸툰'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젊은 연인들의 밀고 당기기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로맨틱하다, 나도 썸타고 싶다"와 "비현실적이다, 전혀 공감 가지 않는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주로 남성 독자층이며 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다. '썸툰'이 여성 독자층으로부터 공감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썸의 성공 사례만 다뤘기 때문이다. '썸툰'의 결말은 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남자의 고백 끝에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 여성들은 '썸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 썸타고 싶은 청춘

대중문화에서 볼 수 있는 썸타는 과정은 예전 '섬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연인이 되기 위한 전 단계만을 지칭했다면 오늘날에는 썸에서만 끝날 수 있는 관계까지 내포하고 있다.

연락 수단이 전화기나 편지, 삐삐 정도였던 과거에는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설렘으로 만들어줬다면 요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이 관계에 녹아들어 서로 즉각적인 반응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즉흥적으로 오고 가는 연락 속에 감정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지며 썸을 굳이 연인 관계로 이끌어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제 썸은 하나의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썸'을 3포 세대(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특징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인이 되기엔 현실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부담 없는 만남을 지속하려는 심리가 작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탑 솔로 패키지 오리콘 1위

빅뱅의 탑(사진)이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솔로 스페셜패키지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

12일 일본에서 발매된 '둠 다다' 탑 스페셜 에디션'은 발매 첫날 오리콘 종합 DVD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DVD는 세련된 영상미로 화제를 모은 '둠 다다' 뮤직비디오와 메이킹 영상, 2010년 발표한 '턴 잇 업' 뮤직비디오, 빅뱅 일본 돔 투어 2013~2014'에서 선보인 솔로 무대 등이 수록된 DVD다. 탑이 지금까지 발표한 솔로곡 4곡이 수록된 CD와 부클릿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표한 바 있는 '둠 다다'는 탑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추상적인 가사와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멜로디를 통해 특유의 유니크한 컬러를 표현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탑은 영화 '동창생'과 '빅뱅 일본 6대 돔 투어', 한국 콘서트 등 연기자와 가수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타짜 2'에 캐스팅돼 촬영에 한창이다. 4~5월 일본에서 열리는 'YG 패밀리 콘서트 인 재팬'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김수현이 부른 '약속' 공개

배우 김수현(사진)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불러 화제가 됐던 '약속'이 스페셜 OST로 전격 공개된다.

'약속'은 드라마 19회에서 도민준(김수현)이 천송이(전지현)에게 불렀던 세레나데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직후부터 팬들의 음원 출시 요청이 쇄도해 음원 공개가 결정됐다.

김수현은 앞서 KBS 드라마 '드림하이'와 MBC '해를 품은 달' 출연 당시에도 OST에 참여해 가창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달 말 깜짝 공개됐던 '별그대' OST '너의 집 앞' 역시 공개 직후 10개의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며 돌풍을 일으키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어 이번 스페셜 OST 공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8일 중국 장쑤위성TV의 인기 프로그램 '최강대뇌-더 브레인'의 초청을 받아 녹화를 진행하고 귀국하는 등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만·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 총 7개국 9개 도시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yswa

소녀시대 vs 2NE1 경쟁 2라운드

앨범 이어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서 대결 돌입
"정말 매력적이다" "한 편의 영화같은 영상"

새 앨범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소녀시대(왼쪽 사진)와 2NE1(오른쪽)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로 경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SM타운 채널에 공개된 소녀시대의 미니앨범 타이틀곡 '미스터 미스터' 뮤직비디오가 올해 공개된 K-팝 뮤직비디오 중 최초로 조회 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1035만2150건을 기록 중이다.

소녀시대는 지난해 정규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로 미국 유튜브 뮤직 어워드의 메인 부문인 '올해의 뮤직비디오'를 수상하는 등 뮤직비디오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미국 빌보드는 이번 뮤직비디오에 대해 "그녀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단연 전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음악 사이트 큅더스트는 "이번 뮤직비디오는 그들이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걸그룹임을 입증했다"고 호평했다.

소녀시대는 '미스터 미스터'로 국내 가요 프로그램 1위는 물론 대만·홍콩 등 아시아 음반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NE1은 지난 3일 공개한 정규 2집 타이틀곡 '컴 백 홈'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K-팝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13일 오전 465만6659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 뮤직비디오에는 뒤지지만 최근 1주일간 조회 수에서는 소녀시대를 앞섰다.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K-팝채널에 따르면 3월 3일부터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차트에서 '컴 백 홈' 뮤직비디오가 1위에, '세피 뮤직비디오'는 3위에 올랐다.

'컴 백 홈' 뮤직비디오는 2NE1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해 마치 SF 영화 같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지난달 열린 '쓰리데이즈'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엑스포츠

쫓는 '쓰리데이즈' 쫓기는 '감격시대'

시청률 0.5%P차 경쟁

스타 작가 김은희의 저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11.7% 닐슨코리아 제공)는 수목극 1위 KBS2 '감격시대'(12.2%)를 0.5%포인트 차로 바짝 따라잡으며 팽팽한 경쟁을 하고 있다.

치열한 싸움에서 시청자와 출연 배우들을 사로잡은 건 김은희 작가의 필력이다.

김 작가는 '쓰리데이즈' 방송 2회 만에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는 등 작가로선 누리기 힘든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섬세함과 규칙함이 동시에 녹아있는 필력으로 드라마 '싸인' '유령' 등을 통해 한국형 장르물의 1인자로 불리며 매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다.

'쓰리데이즈'도 빠른 전개와 범인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을 추리해간다는 김은희식 스토리 구성으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출연 배우들의 작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상태다. 극중 대통령 이동휘 역을 맡은 손현주는 "본격적인 추격과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며 "몇 번 쉼 없이 쓴 김 작가의 대본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훌륭하고 감탄이 나온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유천도 지난달 26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섬세한 구성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극의 탄탄한 구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윤희기자 yeonh@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무대서는 가수 김범수

가수 김범수(사진)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선다.

김범수는 27일 오후 8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에서 '2014 김범수 쇼케스트라 인 시드니' 공연을 갖는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한국 가수가 서는 경우는 드문 일로, 2000년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패티김이 무대에 오른 바 있다.

김범수는 2012년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겟올라잇 쇼케스트라'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턴 오디토리움에서 공연을 여는 등 국내외 전통의 무대를 연이어 수놓았다.

호주 내 K-팝 공연을 기획·주관하는 공연기획사 JK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과 뉴욕 카네기홀 공연에서 연일 매진 기록을 달성했던 김범수가 호주 현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춰 고품격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설환기자

tvN 가이드
★3월 14일(금) 밤 11시 20분 tvN 첫방송★
우리가 입 열면, 그것이 곧 센세이션!!
근대가요사
방자전
방송을 잘 아는 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매주 금요일 밤 11시 20분

순수+세련+섹시 갖춘 스칼렛

'쇼 챔피언'서 매력 발산

신인 걸그룹 스칼렛(사진)이 데뷔 무대에서 순수+세련+섹시 삼박자를 고루 보여주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12일 방송된 MBC 뮤직 '쇼 챔피언'에 출연한 스칼렛은 순백색 의상과 액세서리를 갖추고 때론 청순하게 때론 폭발적인 안무를 선보이며 팬들과 첫 대면식을 가졌다.

스칼렛은 디지털 싱글곡 '두 번째 무대'에서 첫째 사라의 돋보이는 표정, 청순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지예, 팬들에게 큐티 윙크를 날리는 리봄, 파워풀한 카리스마로 20대 초반 여성들의 올바른 연애관을 랩으로 전달한 레아 이르미의 개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칼렛 사라는 "첫 방송을 보면서 감격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멤버들이 다졌다"며 "늘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준기자

민효린 연습생 보낸 JYP와 전속계약

배우 민효린(사진)이 JYP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JYP 연습생 출신이었던 민효린은 "다시 JYP의 일원이 됐다. 어린 시절부터 늘 꿈꾸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기쁘다. JYP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힘이 되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계약 소감을 전했다.

민효린은 향후 JYP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배우·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효진기자

가수 홍대광은 변태중?

셔츠 벗고 바지 내리는 화끈한 티저영상 공개

가수 홍대광이 파격 변신을 시도한다.

13일 홍대광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셔츠를 벗고 바지를 내리는 화끈한 티저 영상(사진)을 공개하며 새로운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데뷔 이래 역대급 파격 변신을 예고한 홍대광이 21일 신곡 발표 계획을 알린 것이다.

영상 말미에는 얌전한 신은 재어 티든가 한다는 모습과 희미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홍대광 변태 중'이라는 메시지로 그간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변신을 예고했다.

홍대광의 신곡은 지난 1월 발표한 EP앨범 '더 실버 라이닝' 파트 1 '답이 없었어' 이후 2개월 만으로 기존 이미지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그간 발라드 가수 이미지가 강했던 홍대광의 변신이 올 3월 음원차트와 남성 솔로 가수 시장에서도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준기자

아이돌 "얼굴 먼저 알려라"

엔플라잉·위너 가수 데뷔 전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이슈 돼야 음악 듣는 시대"

아이돌 홍수 시대에 그들의 생존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음악 방송으로 데뷔했던 과거와 달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먼저 알리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가 내놓는 신인 밴드 엔플라잉(김재현·권광진·이승협·차훈)은 tvN '청담동 111 엔플라잉 스타가 되는 길'로 지난 12월 국내 데뷔를 알렸다.

이미 이들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싱글 '빡스캣'으로 오리콘 인디즈 주간차트 2위에 오른 실력파지만 국내 팬들에겐 친근한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시도에서 리얼리티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한성호 FNC 대표는 "음반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슈가 되야 음악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청담동 111'을 통해 엔플라잉이 대중과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혔다.

앞서 YG의 기대주 위너는 엠넷 '윈'과 '위너TV'를 통해 데뷔 전부터 팬을 확보했다. 그룹 빅뱅과 2NE1의 직속 후배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지난해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을 통해 실력을 입증받아 데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다.

'위너TV'는 '윈'에서 승리한 A팀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내며 멤버 개개인의 특징을 알리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캐릭터와 스토리를 갖는 게 대중문화 성공의 열쇠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위너 멤버들은 빅뱅의 콘서트 무대에 게스트로 서며 그 감동을 잊지 못했고 데뷔곡 녹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등 신인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풋풋한 모습으로 대중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데뷔전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신인 그룹 엔플라잉(위)과 그룹 위너 아래. /CJ E&M·YG엔터테인먼트 제공

/전효진기자 jeonhj85@metroseoul.co.kr

세계 첫 3D 드라마 납시오

'강구이야기' 이달말 방송

SBS가 드라마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

상속자들, '별그대', '신의 선물' 등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사 중 드라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BS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이달 말 3D 드라마 '강구이야기'를 선보인다.

3D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채널을 포함해 처음으로 시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경쟁사의 경우 3D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제작비와 기술로 인해 제작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BS 관계자는 "'강구이야기'는 기존에 방영되고 있는 일반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제작 비용과 3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며 "3개월의 제작 기간은 16부작 미니시리즈 제작 기간과 맞먹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울 촬영을 진행해 겨울 눈의 모습과 바닷바람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구이야기'는 영덕 강구항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운명적이고도 애틋한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박수미(오른쪽 사진)와 이동욱(왼쪽)이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와 드라마 '외제왕'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여온 홍성창 PD와 2013 SBS 극본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백미경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정성준기자

유정현 MC 복귀한다

전국회의원 유정현(사진)이 다시 MC로 돌아온다.

유정현은 박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tvN '라이브 프롬 스페이스'(15일 첫 방송)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프롬 스페이스'는 국제 우주정거장(ISS)과 휴스턴 소재의 우주비행관제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통해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안방극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정현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두 아들과 함께 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MC 복귀 소감을 밝혔다. 공동 MC 박지윤 아나운서는 "특별한 방송의 진행을 맡아 기쁘다"고 말했다.

tvN 관계자는 "'라이브 프롬 스페이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송"이라며 "유정현은 최근 '더 지니어스2'에서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여 이번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300: 제국의 부활' 에바 그린 여전사 카리스마 인기 | '쓰리데이즈 투 킬' 엠버 허드 화려한 총격액션 | '우아한 거짓말' 김희애 모성애 연기 예매율 1위

스크린, 여배우의 '거침없는 진격'

여배우들이 스크린 점령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00: 제국의 부활'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에바 그린의 강렬한 존재감을 앞세워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몰이 중인 가운데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의 활약이 인상적인 블록버스터가 속속 개봉해 눈길을 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대체로 남성 중심으로 그려지는 편이지만 최근 개봉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여자 배우들은 고민의 매력으로 스크린의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이 대표적으로 그는 '300: 제국의 부활'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지휘하는 여전사 아르테미시아로 등장해 근육질의 남자 전사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다. 그린의 활약에 힘입어 이 영화는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 160만 명을 넘었다.

20일 개봉할 '노아'의 제니퍼 코널리와 엠마 왓슨도 노아를 열연한 러셀 크로 못지않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로 분해 그와의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로 잘 알려진 왓슨은 이번 영화를 통해 성숙한 매력을 뽐내 더욱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인 '쓰리데이즈 투 킬'의 엠버 허드 역시 넘볼 한 비밀요원 비비로 나서 제2의 안젤리나 졸리 등극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화려한 총격 액션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한국 영화에서도 여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13일 개봉한 '우아한 거짓말'은 김희애의 고아성이 모녀로 나선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실시간 예매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나란히 개봉한 '몬스터'는 '은교'로 깊은 인상을 남긴 김고은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다. 이 작품 역시 실시간 예매율 상위권에 링크됐다. 이 밖에 심은경 주연의 '수상한 그녀'는 개봉 세 달째에도 여전히 박스오피스 3위를 고수 중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대륙 여심 잡기 나선 지진희

한·중 합작 3D 멜로무비 '길 위에서' 28일 현지 개봉

배우 지진희가 정통 멜로로 대륙 여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지진희가 주연을 맡은 한·중 합작 3D 멜로영화 '길 위에서'가 28일 중국에서 개봉한다.

이 영화는 떠나간 사랑을 잊기 위해 중국 여행을 시작한 남자와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중국 여인이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게 되는 서정적인 멜로물이다. MBC '대장금'으로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지진희는 이번 영화에서 어설픈 필로 연기를 펼친다.

중국의 거장 장이머우 감독의 조감독 출신으로 유명한 김풍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개봉에 앞서 23일부터 베이징·상하이·칭다오·다롄 등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는 지진희를 비롯해 김풍기 감독과 국내에 '공주 허슬' '백사대전'으로 얼굴을 알린 중국 여배우 황성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지진희는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해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영화 '길 위에서'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지진희와 황성이 /SBS엔터테인먼트 제공

/탁진현기자

윤진이 '우리는 형제입니다'로 영화 데뷔

배우 윤진이(사진)가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로 스크린에 데뷔한다.

소속사는 13일 "윤진이가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인 '우리는 형제입니다'에서 방송작가 여일 역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달 촬영에 들어가는 이 영화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헤어진 형제가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휴먼 코미디물이다. 장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성균·조진웅이 출연한다.

윤진이는 "평소에 존경하던 장진 감독님,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을 하게 돼 영광이다. 첫 스크린 도전인 만큼 더 열심히 캐릭터를 분석하고 노력하겠다.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2012년 드라마 SBS '신사의 품격'에서 임메아리 역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tvN '응답하라 1994'에서 빙그레(바로)의 의대 파이터이 선배로 깜짝 등장해 솔직 발랄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풋풋한 소녀의 모습을 선보였다.

/탁진현기자

화려한 액션 '헤라클레스' 내달 개봉 기대 만발

다음달 개봉 예정인 액션 판타지 블록버스터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사진)가 화려한 액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우스의 아들이자 가장 힘 세고 강력한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헤라클레스의 활약을 그린 이 영화는 대규모 전투신과 거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맨손 격투, 거대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글래디에이터의 데스 매치 등 다양한 액션신을 13일 공개했다.

가공할 만한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내는 등 놀라운 능력의 헤라클레스의 활약은 인간의 육신으로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화 속 독보적 영웅의 속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트와일라잇'의 꽃미모 뱀파이어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켈란 루츠가 역대 가장 젊고 섹시한 영웅 헤라클레스로 분한다.

/탁진현기자

백성현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백성현(사진)이 현 소속사인 싸이더스HQ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13일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백성현이 소속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온 배우와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연기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강한 백성현이 의리를 지켜줘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의 아역으로 데뷔한 백성현은 드라마 '하이리스2 [illegible]' '인수대비'와 영화 '자이나[illegible]'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배우로 성장해왔다.

한편 백성현은 현재 KBS1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에서 공들임(김다솜)을 향한 끝없는 순애보를 보여주는 박현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illegible]기자

날씨

3/14 金 일출시각 06 45 일몰시각 18 3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술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할 경우 뇌혈종,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간독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www.yuhs.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6	9	5
	1			2			8	
				8		7		
		3	5			4		
6								9
		7			4	8		
		1		9				
	7			5			1	
2	6	9	8				7	

1		7	4				6	9
				1		5	2	
		9						4
	4		8			9		7
				6				
8		1			5		4	
9						2		
	8	5		3				
2	3				9	7		8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라미티드 [아이를 리오스 자료])

경기 의정부 – 부대찌개의 추억

권기봉의 도시산책 <72>

반세기가 넘도록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네 곳곳에 다양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제일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만나는 '부대찌개'가 그 단적인 예다.

부대찌개라는 명칭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잔반으로 찌개를 끓여 팔기 시작한 데서 유래하는데, 제일시장의 수십 년 된 가게들에선 굳이 메뉴판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소시지와 스팸 그리고 다진 고기를 넣은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래 해마다 부대찌개 축제까지 벌여오는 걸 보면 부대찌개가 마치 의정부의 상징인 양 느껴진다.

그런데 부대찌개의 역사는 곧 눈물의 역사이기도 하다. 지난 1964년 경향신문 1면 톱으로 실린 '허기진 군상'이라는 기사를 보면 드럼통에 담긴 음식물을 사 가는 사람들의 사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덧붙어 있다.

"먹는 것이 죄일 수는 없다. 먹는 것이 죄라면 살은 천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돼지 먹이로 사람이 연명을 한다면, 식욕의 본능을 욕하기에 앞서 삶을 저주해야 옳단 말인가. 담배꽁초, 휴지 등 별의별 물건이 마구 섞여 형언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 반액체를 갈구해야만 하는 대열! 그들은 돼지의 피가 섞여서가 아니다. 우리의 핏줄이요, 가난한 이웃일 따름이다."

부대찌개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죽, 돼지에게나 먹일 꿀꿀이죽'을 인간이 먹을 수밖에 없던 한국전쟁 뒤 가난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기사다.

물론 지금의 부대찌개에는 미군이 먹다 남긴 재료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의 성을 따 '존슨탕'이라고도 부르는 부대찌개는 여전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궁핍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 중 하나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꽃집 운영 결혼생각 없는데 7월 지나면 좋은상대 만나

곤서도 여자 79년 음력 10월 14일 오전 10시

Q 교육자에 종사하다 꽃집을 운영 중입니다. 미혼이고 어머니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자식처럼 5마리 키워서 외로움도 없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할지, 생각도 없는 결혼을 꼭 하고 살아야 할지요?

A 석양에 노을이 지는 형상으로 여유로우며 호방하고 화려하며 자만하는 기질이 있고 사색적입니다. 이로 인해 비현실적이다 공연한 의리와 동정심이 많습니다. 재능이 많아 오히려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병신(丙申)일주로 가을의 열매이므로 돈일 벌 수가 있으며 자기의 생활권으로 운이 가고 있으므로 재물에 애로를 느끼지 않고 살아 왔으나 대운에다 양인(羊刃)양의 힘에 장성(將星) 장군의 별이므로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운이 녹왕지(祿旺地)로 가고 있으므로 꽃집은 계속 잘됩니다. 2014년 7월 지나 정임합(丁壬合)의 기운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연이 이어지니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농사나 부동산종사 어떨까 회사일 충실 명퇴후 준비를

곤서도 남자 62년 음력 9월 11일 저녁 8시

Q 서울 근교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시세는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비현실적인 것인지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보아도 답이 없네요. 심적 갈등이 자주 오고 심하여 제 사주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A 귀하는 평생 일복이 많아 놀고먹는 팔자는 아닙니다. 천성이 흙으로 같이 기물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고 예민하여 큰일을 도모하지는 못합니다. 다행히도 재물 창고를 두었으며 문서운이 녹왕(祿旺)지로 가고 있어 재산은 모으게 된 것인데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재운이 따르지를 않으므로 5년간은 기다림을 갖고 회사에 충실하면서 명퇴와 함께 강좌를 준비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퇴신(退神) 신살의 하나로 전진적인 재앙이 생기고 퇴보하면 오히려 길한 신운데 저세에 없어서 될 리서면 의외로 연쇄 일명(劫財)을 얻을 수 있다으므로 속단하여 실행한 일로 뒤늦게 후회할 수 없음을 유념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14일 (음 2월 1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성급한 투자는 손해 부른다. **60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72년생** 달이 구름 속에 갇힌 형국이다. **84년생** 꼬인 일은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소: **49년생** 마음 안정에 신경 써라. **61년생** 막힌 자금줄은 처다써 풀린다. **73년생** 갑자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 경계하라. **85년생**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겁다.

호랑이: **50년생** 바쁘면 근심이 사라진다. **62년생** 몸은 힘들어도 보람찬 하루~ **74년생** 움직이는 일은 심사숙고하는 게 이롭다. **86년생** 이성과의 만남은 언제나 가슴이 콩~

토끼: **51년생** 계획은 꼬이다 대비할 것. **63년생** 일을 즐기니 결과도 좋다. **75년생** 미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87년생** 영업사원은 남쪽으로 가면 좋다.

용: **52년생** 얽힌 마음이 꼬인 문제 푼다. **64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은 경계해라. **76년생** 운기가 길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88년생** 연인과 잊지 못한 추억 만들어보라.

뱀: **53년생** 지난 실수는 마음 비워라. **65년생** 손실은 보다 값진 경험한다. **77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분수 지켜라. **89년생** 소문이 되는 벗이 생겨 든든하다.

말: **42년생** 생각한 일 진행해도 좋다. **54년생**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형국. **66년생** 일청이 일러가니 근심도 사라진다. **78년생** 운기가 힘으니 이만을 일타워라.

양: **43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5년생**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하루가 된다. **67년생** 계획은 한계에 맞춰 짜라. **79년생** 쉽게 생각했던 일은 여의치 않다.

원숭이: **44년생** 밖으로 다가면 일이 즐겁다. **56년생** 최선을 다하면 곧 이뤄지리라. **68년생** 자녀에게 경사가 생겨 한턱 낸다. **80년생** 체면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라.

닭: **45년생** 배우자 의중 잘 파악할 것. **57년생** 구름 속의 달이 밖으로 나온 형국이다. **69년생** 못마땅해도 현실은 받아들여라. **81년생** 경솔한 행동은 후회 부른다.

개: **46년생** 성급한 결단은 후회만 남는다. **58년생** 자식 자랑은 자리 봐가며 하라. **70년생** 과욕을 부리면 어이없는 실수한다. **8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움직이지 마라.

돼지: **47년생**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할 것. **59년생** 성급한 판단은 후회만 남긴다. **71년생** 약간은 부족해도 타협점 찾아라.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이 될 여운다.

특명! 위기의 팀을 구하라

기성용·김보경 소속팀 강등권 탈출 선봉나서… 16일 출격

소속팀을 구하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가대표 김보경(25·오른쪽 사진)과 기성용(25·왼쪽)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들은 강등권 위기에 놓여 있는 소속팀의 생존을 위해 그라운드에 나선다.

김보경의 소속팀인 카디프시티 FC는 16일 자정부터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파크에서 열리는 에버턴 FC와 2013~2014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29라운드까지 카디프시티는 승점 25를 쌓아 강등권인 18위에 올라있다.

최근 FA컵 경기를 포함해 1무4패의 부진에 빠졌으니 지난 9일 풀럼 FC와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3-1로 승리해 분위기를 반전했다.

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김보경은 4차례 슈팅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팀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활약을 인정받아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하는 29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입지를 강화해 에버턴전에서도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카디프시티에 이어 19위(승점 24)에 머문 선덜랜드 AFC의 기성용도 팀의 프리미어리그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캐피털원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놓치고 FA컵 8강에서도 헐시티 AFC에 관미(?)해 팀 분위기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성용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단 경쟁팀들보다 2~3경기 적은 26경기를 치른 것은 그래도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2·바이엘 레버쿠젠)은 팀의 침체 속에 유럽 최강팀 바이에른 뮌헨과 정규리그 25라운드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동원(23)과 홍정호(25)가 뛰는 FC 아우크스부르크는 레버쿠젠을 밀어내고 3위를 노리는 FC 샬케와 대결을 앞두고 있다.

/정설운기자 ysa@metroseoul.co.kr

김선형 19점…SK 먼저 1승

농구 6강 PO 1차전 오리온스 물리쳐

프로농구 서울 SK가 고양 오리온스를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

SK는 1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1차전 오리온스와의 홈 경기에서 84-73으로 이겼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오리온스를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둔 SK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까지 가져가며 오리온스 천적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SK의 두 가드 주희정과 김선형이 경기를 지배했다.

주희정(37)은 2쿼터에만 3점슛 3개와 자유투 2개를 100% 성공하는 등 11점을 몰아쳐 SK가 48-31로 리드하는데 앞장섰다.

3쿼터에는 김선형의 활약이 컸다. 오리온스의 맹추격으로 56-54까지 따라 붙은 3쿼터 막판에 그는 3점슛과 자유투 2개, 속공, 다시 자유투 2개씩 두 번을 연달아 성공해 순식간에 67-56을 만들었다.

3쿼터 종료 직전 코트니 심스의 덩크슛으로 69-59를 만든 SK는 4쿼터 시작과 함께 심스·김선형·박승리가 연달아 2점씩 6점을 보태 75-59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이날 경기에선 김선형이 19점으로 팀 최다득점을 올렸고 애런 헤인즈(16점 8어시스트 6리바운드), 주희정(11점)의 활약이 돋보였다.

오리온스는 앤서니 리처드슨이 21점으로 분전했으나 리바운드 싸움에서 25-35로 밀리면서 2차전을 기약했다.

두 팀의 2차전은 1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전효진기자 lusth84@metroseoul.co.kr

나비처럼 날아서 13일 열린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서울 SK나이츠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에서 SK 김선형이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13일

SK	17	31	21	15	84
오리온스	16	15	28	14	73
KDB생명	11	18	17	19	65
우리은행	15	21	15	9	60

13일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SK 와이번스의 시범경기에서 4회말 2사 2루 상황 넥센 강지광이 투런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뉴시스

강지광 '괴력' 빛났다

한 경기 홈런 2개… '제2의 박재홍' 기대

넥센 히어로즈의 강지광(24·사진)이 올 시즌 프로야구 시범경기 스타로 빛나고 있다.

강지광은 1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2번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홈런 2개와 함께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다. 넥센은 강지광의 활약에 힘입어 6-0으로 완승을 거뒀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조조 레이예스를 상대로 우중월 솔로 홈런을 터트린 강지광은 4회 2사 2루 상황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투런 아치를 그렸다. 그는 8일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전에서도 솔로포를 터트려 현재 시범경기 홈런 1위(3개)에 올랐다.

강지광은 2009년 2차 3라운드 전체 20순위로 LG 트윈스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오른 팔꿈치 연타 손상으로 선수 생활에 고비를 맞았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타자로 전향한 그는 지난해 퓨처스리그 21경기에서 타율 0.231, 1홈런 9타점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강지광을 넥센으로 데려온 염경엽 감독은 장타력과 빠른 발을 겸비한 그를 '제2의 박재홍'이 될 재목으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경기에서 넥센 선발 투수 문성현(23)은 4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2볼넷으로 호투했다.

대전에서는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가 2-2로 비겼다. 7회말 내린 비로 심판진은 강우 콜드게임을 선언했다.

외국인 선발투수의 맞대결에서 NC의 에릭 해커는 3이닝 무피안타 1볼넷으로 호투했고, 한화의 케일럽 클레이는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한국 프로야구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화 외국인 타자 펠릭스 피에는 7회말 대타로 한국 무대 첫 타석에 등장해 중전안타를 기록했고, 곧바로 2루 도루에 성공했다.

대구에서 열릴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유순호기자 suno@

윤석민 16일 메이저리그 데뷔전

시범경기 양키스전 등판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한 윤석민(28·사진)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첫 번째 상대가 뉴욕 양키스로 결정됐다.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볼티모어 구단의 소식을 전하는 미드애틀랜틱스포츠네트워크는 윤석민이 오는 16일 미국 플로리다 세라소타 에드스미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데뷔한다고 13일 전했다.

윤석민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14일 팀의 스프링캠프로 합류한다. 볼티모어의 벅 쇼월터 감독은 윤석민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고 곧바로 시범경기 마운드에 세울 계획이다.

쇼월터 감독이 시범경기에서 만족하던 볼티모어 메이저리그로 진입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트리플A로 내려갈 수 있다. 윤석민은 올해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순호기자 yuno@

프로배구 전적 13일

KGC인삼공사	3	0	도로공사
러시앤캐시	3	2	삼성화재